

뉴스홈 | 최신기사

# -프로야구- 삼성 3연승 PO진출.. '두산 나와라'(종합)

송고시간 | 2008-10-11 18:45



-프로야구- 삼성 3연승 PO진출.. '두산 나와라'(종합)

(대구=연합뉴스) 장현구 진규수 기자 = `12년 연속 포스트시즌 진출'이라는 역사를 쓴 삼성 라이온즈가 준플레이오프(PO)에서 파죽의 3연승으로 플레이오프에 안착했다.

삼성 11일 대구구장에서 열린 2008 프로야구 준PO 3차전에서 롯데 자이언츠에 6-4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다. 역전과 재역전을 반복하던 경기는 8회가 돼서야 승부가 결정났다.



4-4로 팽팽히 맞서던 삼성은 2사 이후 강봉규와 최형우가 롯데 마무리 데이비드 코르테스에게 연속 안타를 뽑아내 주자 1,3루를 만들었고 롯데 배터리가 박한이를 고의 사구로 내보내면서 2사 만루의 기회를 잡았다.

1,2차전에서 9번 타자로 나와 8타수 4안타로 맹활약한 덕에 이날 2번 타자로 타순이 조정된 조동찬은 코르테스와 7구까지 가는 끈질긴 승부 끝에 중견수 앞 2타점 결승타로 경기를 6-4로 뒤집어 일등 공신이 됐다.

조동찬은 이날 경기 최우수선수(MVP)로 뽑혀 상금 100만원을 손에 넣었다. 삼성 4번 타자로 12타수5안타2타점으로 맹활약하고 수비에서도 팀을 안정적으로 이끈 진갑용은 준플레이오프 MVP로 선정돼 200만원을 받았다.

진갑용은 경기 후 "이대호는 초구를 잘 때려 투수에게 유인구부터 던지게 했고 가르시아는 직구와 변화구를 계속 섞어 던지는 방법으로 리드한 것이 주효했다"라고 말했고 조동찬은 "시즌 초에 비해 타격감이 좋다. 한국시리즈에 올라가 형 조동화(SK)와 대결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준PO 1차전 승리팀은 100% 플레이오프에 진출한다는 공식은 올해도 깨지지 않았다.

삼성 16일 잠실야구장에서 올 시즌 정규리그 2위인 두산 베어스와 7전4선승제의 플레이오프를 치른다. 두산은 시즌 종료 후 주전 선수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해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삼성 또한 올 시즌 두산과 정규리그 전전에서 10승8패로 앞서고 있어 흥미로운 승부가 예상된다.

이날 경기는 3차전에서 끝내려는 삼성과 승부를 5차전까지 끌고 가 대역전승을 이끌어내겠다는 롯데의 승부욕이 부딪히면서 일진일퇴의 공방전으로 진행됐다.

삼성이 1회말 1사 만루에서 박석민의 밀어내기 볼넷으로 선취점을 얻자 롯데는 4회초 2사 1,3루에서 강민호의 적시타로 1-1 동점을 만들었다.

삼성이 4회말 최형우의 희생플라이로 2-1로 앞서가자 롯데는 5회초 박기혁이 안타와 김주찬의 2루타를 묶어 2-2 동점을 만들었고 이어 이인구마저 2루타를 추가하면서 3-2로 경기를 순식간에 뒤집었다.

롯데는 7회초 이인구의 볼넷, 조성환의 안타, 이대호의 내야안타와 수비 실책 등을 묶어 한 점을 더 보태 4-2까지 달아났다. 그러나 가르시아의 2루수 직선 타구 때 이대호의 미숙한 주루플레이로 순식간에 투아웃이 되면서 추가점을 뽑지 못



핫뉴스 →

박진,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한국에 너무 많은 민주주의"

'왕좌의 게임' 출연배우,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체포

여성 전용 교도소라는데...美서 동료 재소자끼리 성관계 후 임신

다섯식구 평균키 203cm...美 가족 '최장산' 기네스북 등재

"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 2015년 파리 테러범...

韓 육사 생도 영 왕립사관학교 첫 졸업...여왕 "양국...

日 공주와 결혼한 대학 동기, 뉴욕 변호사 시험 또...

기원전 2-3세기 마야 달력 파편 발견..."가장 오래...



했다.

‘위기 뒤 기회’라는 야구 격언은 삼성의 7회말 공격에서 그대로 맞아떨어졌다.

조동찬이 몸에 맞는 볼로 출루한 뒤 타석에 들어선 양준혁이 롯데 강영식의 2구째를 잡아 당겨 오른쪽 담장을 넘어가는 투런 홈런을 때려내며 경기를 4-4 원점으로 되돌렸다. 분위기를 탄 삼성은 8회말 조동찬의 2타점 결승타로 3연승의 대미를 장식했다.

삼성 조진호는 2이닝을 1안타 무실점으로 막아 승리투수가 됐고 9회 세 타자를 범타로 처리한 오승환은 세이브를 기록했다. 롯데 코르테스는 2점을 내주면서 패전의 멍에를 썼다.

특히 롯데는 7회까지 4명의 투수를 투입한 데 이어 8회부터 마무리 데이비드 코르테스를 조기 투입하는 초강수를 뒀지만 결정적일 때 삼성 타선에 무너지면서 8년만의 포스트시즌 진출에 만족해야 했다.

sout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8/10/11 18:45 송고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현장 영상 →

▶ 01:18

[영상] 입발 묶인채 두 눈만 열렁열렁...누가 학대했나

▶ 02:22

[영상] 곡사포·수송헬기·장갑차...美, 꺼렸던 무기들 결국 우크라이나

[영상] 미국 최고위급 키이우 방위 컨 등 후보군"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에디터스 픽 Editor's Picks

● 영상

▶ 01:59

[영상] 윤석열, 안철수 패상' 질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

● 뉴스

마스크만 빼고...'사회적 거리두기' 2년1개월 만에 사라진다

尹당선인 安위원장 만찬 회동..."공동정부 한치의 흔들림 없어"

尹 당선인 "韓, 위상 맞게 외교정책 강화...美와 더 강력한 동맹"

'엄중의 시간' 시작됐다...한동훈, 청문회 준비 돌입

"의학에 뜻' 정호영 아들, 학부 4년간 관련과목 2개 수강"

## 댓글 많은 뉴스

1 김건희 여사 팬카페, 악성 댓글 누리꾼들 경찰에 고발  
151

2 '유퀴즈'尹당선인 출연 논란..."프로그램 취지와 안 맞아"(종합)  
67

3 정호영 자녀, 경북의대 편입전 아버지 있던 경북대병원 자원봉사  
61

4 두문불출 이재명, 이발 염색...조기등판론 속 활동 재개 예정?  
56

5 문대통령, 손석희와 대담...靑 "임기 5년 소회 밝힐 예정"  
40

뭐하고 놀까? #홍→

뉴스홈	최신기사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					
비주얼뉴스	영상	포토	화보	#D	그래픽							뉴스상품	프리미엄뉴스	뉴스리더	인타넷맞춤형	보도자료	해외배포	보도자료	국내배포
테마별뉴스	핫뉴스	톱뉴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단독뉴스	많이본뉴스						출판물	이매진	연합연감	영문연감	한국인물사전	단행본	월간 미디어스	
뉴스+	이슈돋보기	팩트체크	재난포털	날씨	주요신문	톱뉴스/사설	이시각	헤드라인				광고	KTX 열차	APEX 공항철도	모바일	PC/홈페이지	출판물		
모바일 뉴스	모바일웹	모바일앱										콘텐츠 판매	보도사진	이미지	그래픽	동영상	인물		
외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عربي	Español	Français						관련사이트	연합뉴스TV	인포맥스	한민족센터	K컬처기획단(K-ODYSSEY)	채용	IR 클럽	#홍

개인사/제휴문의